

28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 강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것을 본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 말씀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대신
해서 죽으실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제해요

1. 예수님께서 왜 요단 강에 가셨나요? ()



① 수영을 하시려고



② 물고기를 잡으시려고



③ 세례를 받으시려고

2.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 보세요.

3.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고 위의 빈 곳에 적어 보세요)

암송

암송을 따라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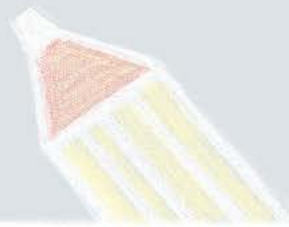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기도하는 어린이



제가 잘못을 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예쁘게 꾸미기

성경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양에 색칠하고 하얀 솜을 붙여서 예쁘게 꾸며 주세요.



미로 찾기

영민이가 예수님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세요.

